

전북대병원, 응급진료시스템 개선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최근 발생한 중증의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 재발방지책을 담은 응급실 진료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놨다.

강명재 병원장은 19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의상 소아환자의 사망으로 큰 슬픔을 가져드린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전북도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다시는 아까운 생명이 쓰러지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선책 발표에 앞서 강 원장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면서 전북권역은 물론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150억원 투입 응급실 시설 확충

호출당직 진료 못하면 임중 조치

발생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 병원장은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응급실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사건 발생 직후 TF팀을 만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 왔다"며 "우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이 발표한 응급실 개선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원 투입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이송구급대 및 타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로 압축된다.

시설개선 측면에서 보면 1년 365일 24시간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 즉시 소생, 응급수술, 중환자 관리 등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겠다는 각오이다.

이를 위해 병원 자체 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을 확충 보완 중이며, 향후 의상 및 응급환자를 위한 혈관조영실을 갖출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당직전문의 호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 진료과 및 관련 진료과가 결정되면 즉각 당직전문의 호출하고 특히 호출받은 당직전문의가 환자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이송구급대 및 타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내 응급의료진의 의료기능을 강화해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거나 진료에 적절치 않은 병원으로 가는 사례를 줄여 수술에서 근본치료까지 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원의뢰시 해당 의견기관의 응급의료 책임자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주변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합시다

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단독주택 의무설치 홍보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도지부(지부장 최태욱)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해 신·증축 등 주택의 경우 법 시행일(2012년 2월5일)부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는 내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

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 풍남문 중루 보수 공사 19일 전주시 풍남문 중루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초기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전주시는 보물 제308호로 지정된 풍남문 중루에 기동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 안전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내년까지 보수 공사를 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훔친 노인 입건

생활정보지를 상습적으로 훔쳐 고물상에 판 6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9일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생활정보지 배포함에 있는 생활정보지(1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생계비 마련 위해 훔친 생활정보지를 고물상에 폐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아파트 복도서 고성방가 출동 경찰 폭행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밤 11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목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배상금으로 3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박차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관련 조례 제정

전주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전주사고와 조선왕조실록, 완판본 및 전라감영 목판 등을 보유한 대한민국 역사·기록·인쇄·출판의 중심지인 전주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민간기록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 관련 각종 기록물을 집대성한 '전주정신의 숲(기록원)' 설립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와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구술기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전주 관련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기증을 원칙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구입하거나 사본제작 등의 방법으로도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기록물의 소재 정보 발굴과 조사 및 수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수집요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록물 수집계획 수립, 조사 및 수집 활동, 시 지정기록물 및 전주기록사랑마을의 지정과 해제, 수집할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시는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개최하고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를 전주기록사랑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주 관련 민간기록물이 수집·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주정신의숲(기록원)' 설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관련 기록물 수집과 전주정신의숲 설립을 위해 시민들의 기여와 이야기를 기록한 구술기록도 받고 있다. 전주의 역사에 조예가 깊거나 관심 깊은 시민은 언제든지 전주 시청 총무과(063-281-5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기사제보 288-9700

덕진노인복지관 늘푸른합창단, '복지부장관상' 수상

저소득층 아동 가정돕기 후원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관장 오정석) 소속 늘푸른합창단(단장 김현숙)이 19일 서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2016 전국사회복지자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늘푸른합창단은 지난 2007년에 창단 이후 매년 50여 차례씩 현재까지 총 350여회에 걸쳐 전북은 물론 전국, 해

외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저소득층 아동가정 돕기 후원금 지원과 캄보디아 우물파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노후에 비탄직한 노인전문봉사단 모습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현숙 늘푸른합창단 단장은 "노후의 공연봉사를 통해 여러 문화소의

지역을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음악으로 웃음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연봉사와 나눔을 통해 삶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덕진노인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 현재 늘푸른합창단을 비롯한 5개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